



한 국 기 독 교 장 로 회



경동교회

Kyungdong Presbyterian Church

제75년 45호

창조절 열째 주일

2020년 11월 8일

예배시간 1부 09:30

2부 11:30

온 누리에 풍성함이 | 김필연

04614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204(장충동 1가)

Tel: 02-2274-0161~3 Fax: 02-2277-0798

<http://www.kdchurch.or.kr>

전주

깨어 있어라, 우리를 부르시네(J. S. Bach) 1부 오르가니스트: 채문경 권사
2부 오르가니스트: 신채우 집사

모임 (*는 일어서서)

***모임찬송**

22장(만유의 주 앞에) **다함께**

***예배부름**

목 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조절 열째 주일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시고,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사 42:5), 우리가 함께 주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사 65:18), 주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합시다(시 89:12).

회 중: 아멘.

***송영**

..... **오르가니스트**

***시편교독**

목 사: 내 백성이,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회 중: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목 사: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회 중: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목 사: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회 중: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목 사: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회 중: 할렐루야!(시 78:1-7).

경배찬송

347장(허락하신 새 땅에) **다함께**

죄의 고백

목 사: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늘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신다는 말씀(을 2:12-13)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회 중: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요일 1:9).

응답송 **주여 용서하소서**(경동찬송 38장) **다함께**
주여 용서하소서 뉘우치는 우리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침묵의 기도 **다함께**

용서의 선언 **목 사:**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하 7:14)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회 중: 아멘.

응답송 **온 세상 사람들아**(경동찬송 16장) **다함께**
온 세상 사람들아 주 찬양하여라 온 세상 나라들아 주 찬양하여라

말씀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기 24:14-18** **1부: 이경재 집사**
2부: 문 랑 집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 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1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생명을 담은 샘물 같아
 마음에 품고 마실 때 마다 새 삶의 희망 솟아나네

서신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13-18 **1부: 박민정 집사**
2부: 공진영 집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2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마음의 병을 고쳐주네
 고통에 지친 영혼이라도 다 나아 기뻐 노래하네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서 25:1-13 **목사**
 “그런데,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 하여라.’ 그 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응답송**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경동찬송 27장) 3절 **다함께**
주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새날을 여는 햇빛 같아
마음 문 열고 맞아들이면 근심과 어둠 사라지네

친교와 소식 **목사**

기도 **여정성 장로**

응답송 **오르가니스트**

특송 이 세상의 친구들(A. A. Luther) **1부: 유희업 집사**
주안에서 기뻐하여라(F. Schubert) **2부: 이예랑 교우, 김유정 집사**
김 호 집사, 김준홍 교우

설교 “그리스도는 재림하시는가?” **채수일 목사**

기도 **설교자**

보냄

봉헌과 찬송 182장(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다함께**

***봉헌기도** **목사**

***보냄찬송** 635장(하늘에 계신) **다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 **목사**

***송영** **오르가니스트**

후주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J. M. Black) **1부 오르가니스트**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J. Marsh) **2부 오르가니스트**

『경동찬송』은 찬송가 뒤편에 있습니다.

알리는 말씀

1. 교우소식

- ▶출판: 조영자 권사(『글로 쓴 인생, 살아가는 독서』, 국학자료원 새미)
- ▶전시회: 이희재 집사(『몸 속에 수장된 바다에 입힌 황금갑옷』, 11월 12일(목)~11월 29일(주일) 도로서살롱)

2. 2020년도 하반기 위원장 전체회의

- ▶일시와 장소: 오늘(11월 8일) 2부 예배 후 본당

3. 세례·견신례 교육

- ▶일시: 다음 주일(11월 15일), 11월 22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여신도실(선교관 3층)
- ▶세례문답: 11월 29일(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
- ▶문의: 배영호 목사

4. 다음 주일(11월 15일) 예배 위원

기도	성경봉독		수요기도(11월 18일)	
고순희 장로	1부	윤경하 집사, 정연희 집사	아침	박지호 집사
	2부	안상호 집사·명재미 집사	저녁	박재윤 장로

특별봉헌 10월 25일

감사헌금

길지용·박경애(주님의 크신 은혜), 김경원(독창회 감사), 김명숙(감사), 김범수(감사), 김수평·임문규(범사), 김정란(어머니 장례 감사), 김지옥(십일조), 김현(감사), 김형규(감사), 박나혁(십일조), 박동우·이현미(감사), 박미희(감사), 박연길·박수미(십일조), 박재준·박소영(진서생일), 박정숙(손자 대학졸업), 배영호·박영조(십일조, 배상은 혼례 감사), 신낙균(감사), 신호진(십일조), 안명혁·허은실(귀한 선물 친손자 주심), 이공진(하나님 은혜), 이명희(감사), 주형준·이재림(감사), 채광천(십일조), 채수일·김경숙(범사 감사), 황성훈(십일조), 무기명(감사)

지정헌금

여해 강원용 목사 흉상 건립 헌금

김종화·황영자, 김혜경, 박형기, 이강백, 이창무, 장년회

주일예배(1, 2부) 참여방법 안내

사전접수: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교회사무실 T. 02-2274-0161)

주일예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 준수

찬송가와 성경책 개인 지참

개인 마스크(KF80 이상 권유) 필히 착용 후 입장

'주일예배', '성경인물탐구(수요일)', '주제로 읽는 성경(금요일)' 영상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kdchurch.or.kr 유튜브 검색: 경동교회

헌금(주정, 십일조, 감사, '코로나19'긴급구호헌금, 목적헌금) 안내

계좌: 우리은행 1005-403-855152 한국기독교장로회경동교회

*헌금을 입금하실 때 '이름'과 함께 '헌금내용'을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 ○○○십일조, ○○○감사, ○○○구호, ○○○목적

예배와 집회 안내

부 서	일시 및 장소	성 경 말 씀	설 교 제 목	설 교 자
유치부	주일 09:30 교육관 203호	이사야서 40:26	놀라우신 하나님	최고권 전도사
어린이부	주일 09:30 장공채플실	이사야서 40:28-31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박재준 전도사
중 · 고등부	주일 09:30 여해문화공간	이사야서 40:12-26	놀라우신 하나님	김민정 목사
경청(청년)	주일 14:00 장공채플실	요한복음서 8:12-20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박선교 목사
금요기도회	금요일 17:00 장공채플실	생명평화기도회		

수요 아침예배 · 저녁성경공부(11월 11일 본당)

	아침예배(오전 11시)	저녁성경공부(오후 7시 30분)
인도 오르가니스트	배영호 목사 이재림 집사	채수일 목사 권정원 집사
전주 · 송영	오르가니스트	
예배부름	인도자	
찬송	526장(목마른 자들아)	295장(큰 죄에 빠진 나를)
알리는 말씀	인도자	
기도	박영애 권사	홍기선 장로
성경봉독	에스겔 47:1-12	마태복음서 1:18-25
설교	‘흘러 흐르는 생수의 강’ 배영호 목사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채수일 목사
찬송	401장(주의 곁에 있을 때)	299장(하나님 사랑은)
축도	목사	
송영 · 후주	오르가니스트	

다음 주일 말씀

11월 15일(창조절 열한째 주일)

성 경: 구 약(사사기 4:1-7)
서신서(테살로니가전서 5:1-11)
복음서(마태복음서 25:14-30)

설 교: ‘착하고 신실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채수일 목사